The Book of the Secrets of Enoch

에녹의 비밀서

(부제: 슬라브어 에녹서 or 에녹 2 서)

이 초기 문헌의 새로운 단편은 최근에 러시아와 세르비아에서 발견되었으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슬라브어로만 보존된 특정 사본을 통해 세상에 나왔습니다. 기독교 시대가 시작될 무렵 어딘가에 현재의 형태로 기록되었다는 점 외에는 그 기원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의 최종 편집자는 그리스인이고 그것의 작문 장소는 이집트였습니다. 그 가치는 그것이 신약성경의 저자들에게 미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영향에 있습니다.

그러한 책이 존재했다는 바로 그 지식이 아마도 1200 년 동안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초기 세기에 기독교인과 이교도인 모두에 의해 많이 사용되었으며 초기 기독교의 형태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문서를 형성합니다.

세상이 6 일 만에 창조된 것처럼 그 역사는 6000 년 만에 끝이나고 1000 년의 휴식이 뒤따를 것이다. 7000 년이 완성이 된 다음에 시간이 더 이상 없어야 하는 때에 영원한 8 번째 날이 시작됩니다.

The Forgotten Books of Eden, by Rutherford H. Platt, Jr., [1926]에 있는 The Book of the Secrets of Enoch을 한글로 번역하였습니다.

1 장

태양과 달의 작동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세상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 천문학과 흥미로운 고대 달력. 15-17 장 또한 21 장을 참조하십시오. 창조 이전의 세상은 어떠했는지, 24 장을 참조하십시오. 26 장은 특히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독특한 설명(29 장)

한 지혜로운 사람과 위대한 조물주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영접하시고, 그가 가장 높은 처소를 바라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롭고 위대하고 상상할 수 없으며 불변하는 영역의 목격자가 되게 하셨노라.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고 밝고 눈이 많은 주님의 종들과 접근할 수 없는 주님의 보좌, 무형의 군대의 계급과 현시, 수많은 구성원들의 형언할 수 없는 봉사, 그룹 군대의 다양한 발현과 표현할 수 없는 노래, 그리고 무한한 빛.

2 그 때에 그가 말하기를 내 165 세가 차매 내가 내 아들 므두셀라를 낳았노라.

3 그 후에도 나는 이백 년을 살고 삼백육십오 년을 살았노라.

4 정월 초하루에 나는 집에 혼자 있었고 내 침상에 누워 잠을 잤노라.

5 내가 잘 때에 내 마음에 큰 괴로움이 생겨 자다가 눈으로 울며 이 괴로움이 무엇이며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알지 못하였노라.

6 또 두 사람이 내게 보이니 심히 크므로 나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그들의 눈도 불타는 빛과 같으며 그들의 입술에서는 불이 나오며 옷을 입고 여러 가지 노래를 부르며 자색의 외양을 가졌고 그들의 날개는 금보다 더 빛나고 그들의 손은 눈보다 희더라.

7 그들은 내 침상 머리에 서서 내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노라.

8 그리고 나는 잠에서 깨어나 내 앞에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분명히 보았노라.

9 내가 그들에게 문안하고 무서워하며 내 얼굴이 두려움때문에 변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내게 말하되:

10 에녹아 담대하라 두려워말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에게 보내셨도다. 보라, 네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야 하노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온 가족에게 네가 없을 때에 땅에서 네 집에서 행할 모든 일을 말하고 주님께서 너를 그들에게 돌려보내실 때까지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하라.

11 내가 급히 그들에게 순종하고 내 집에서 나가 명령한 대로 문으로 나아가 내 아들 므두셀라와 레김과 가이다드를 불러 그 사람들이 내게 말한 모든 기이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노라.

2 장

지시. 에녹이 그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지시했는가.

내 자녀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게 닥칠 일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늘과 땅을 짓지 않은 헛된 것의 면전에서 떠나라, 이는 그들은 멸망하고 그들에게 경배하는 자는 멸망하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그 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굳건히 하실지라. 그리고 이제 나의 자녀들아,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돌려보내실 때까지 아무도 나를 찾을 생각을 하지 말라.

3 장

에녹의 추측; 천사들이 그를 첫째 하늘로 데려간 방법.

에녹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매 천사들이 그를 날개에 태워 첫째 하늘로 업어 구름 위로 올렸노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다시 보니 더 높은 곳을 보았는데, 에테르*를 보았고 그들은 나를 첫째 하늘에 두었고 땅의 바다보다 더 큰 매우 큰 바다를 보여 주었노라.

*에테르: 제 5 원소. 하늘을 구성하는 하나의 원소.

*지상에 있는 4 원소: 물, 불, 공기, 흙

4 장

별을 다스리는 천사들.

그들은 별의 질서를 관장하는 장로들과 통치자들을 내 앞에 데려왔고, 별들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이백 명의 천사들을 나에게 보여 주었는데, 그들이 그들의 날개로 날아 항해하는 모두에게 돌아왔노라.

5 장

천사들이 눈의 창고를 지키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내려다보니 눈의 보물창고와 그들의 무서운 창고를 지키는 천사들과 그것들이 나가고 들어가는 구름을 보았노라.

6 장

이슬과 올리브유와 각종 꽃들.

그들이 나에게 이슬의 보물창고, 올리브 기름과 같은 것과 땅의 모든 꽃과 같은 모양을 보여 주었노라. 또 이런 것들의 보물창고를 지키는 많은 천사와 또 그것들을 어떻게 닫고 열게 하는지를 보여주었노라.

7 장

에녹이 둘째 하늘로 옮겨진 방법.

그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둘째 하늘로 올라가서 세상의 어두움보다 더 큰 어두움을 내게 보이더니 거기서 내가 보니 죄수들이 매달려 있고 감시당하며 크고 무한한 심판을 기다리는데 거기 천사들은 어두운 모습을 하고 있고 세상의 어두움보다 더하고, 모든 시간 동안 끊임없이 울고 있었도다.

2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말하되: '어찌하여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느냐?' 그들이 내게 대답하기를: '이들은 하나님의 배교자들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의논하고, 다섯째 하늘에 매여 있는 그들의 왕자와 함께 떠나간 자들이라'

3 내가 그들을 크게 불쌍히 여기매 그들이 나에게 문안하며 내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주소서'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유한한 인간인 내가 누구이기에 천사를 위하여 기도하리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알며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누가 알며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인가?'

8 장

에녹이 셋째 하늘로 승천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가 셋째 하늘로 데려가 그곳에 두었노라. 그리고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선한 것으로 알려진 적이 없는 그런 장소의 생산물을 보았노라.

2 그리고 나는 모든 향기로운 꽃 나무와 향기로운 그 열매를 보았으며, 그 열매들은 매우 달콤한 향기가 있었으며, 향기로운 숨으로 가득한 나무에서 나온 모든 음식을 보았노라.

3 또 주님께서 낙원으로 올라가실 때에 쉬시는 그 곳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 한가운데서 쉬시노라. 이 나무는 형언할 수 없는 선함과 향기를 지니고 있으며, 현존하는 모든 것보다 더 돋보이는 아름다움이 있도다. 그 사방의 모양은 금빛 같고 주홍빛과 불 같으며 모든 것을 덮고 모든 열매에서 소출이 있도다

4 그 뿌리는 땅 끝에 있는 동산에 있도다.

5 그리고 낙원은 썩음과 썩지않음 사이에 있도다.

6 두 샘은 꿀과 젖을 내뿜는 샘이요, 그 샘은 기름과 포도주를 내뿜고 또 네 갈래로 갈라져 조용한 코스로 돌아서 에덴의 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노라. 에덴의 동산은 썩음과 썩지않음 사이에 있도다.

7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땅을 따라 나아가고,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순환에 대한 회전을 가지도다.

8 여기에는 열매 없는 나무가 없고 모든 곳이 복이 있도다.

9 또 매우 밝은 삼백 명의 천사가 있어 동산을 지키며 끊임없는 감미로운 노래와 침묵하지 않는 목소리로 모든 날과 시간에 주님을 섬기느니라.

10 내가 말하기를: '이 곳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 곳인가' 하고 그 사람들이 내게 말하되:

9 장

의인과 자비를 받은 자들의 처소를 에녹에게 보여 주심.

에녹아, 이곳은 의인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 그들의 영혼을 노하게 하는 자들의 모든 범죄를 견디며 불의에서 눈을 돌리며 의로운 재판을 하며 주린 자에게 떡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의복을 입혔으며 엎드러진 자를 일으키며 상한 고아를 도우며 주의 면전에서 흠 없이 행하며 그분만을 섬겼던 자들, 그들을 위하여 이 곳이 예비되어 영원한 기업이 되느니라.

10 장

여기에서 그들은 에녹에게 끔찍한 장소와 다양한 고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나를 북쪽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매우 끔찍한 곳을 보여주었노라. 그곳에는 온갖 고문이 있었노라: 잔인한 어둠과 조명 없는 어둠, 거기에는 빛이 없고 흐릿한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노라. 불타는 강이 나아오며 그 곳은 사방에 불이 있고 사방에 서리와 얼음이 있고 목마름과 떨림이 있으며, 반면 결박은 매우 잔인하고 천사들은 무서우며 무자비하고 분노한 무기를 들고 무자비하게 고문하노라. 내가 말하되:

2 '화, 화, 이 곳이 얼마나 무서운가'

3 그 사람들이 내게 말하되: ‘오 에녹아, 이 곳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요, 땅에서 자연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자들, 곧 소돔과 같이 남색과 마술과 요술과 사악한 요술을 좇는 자들, 그들의 악행, 곧 도둑질과 거짓말과 중상모략과 시기와 욕설과 음행과 살인을 자랑하는 자들, 저주를 받아 사람의 영혼을 훔치는 자, 가난한 자에게서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자기는 부자가 되며, 남의 재물을 위하여 남을 해하는 자, 배의 허기짐을 만족케할 능력이 있는 자를 배고픔에서 죽게 만들며, 입을 능력이 있는 자를 벗겨 벗은 자로 만드는 자, 그들의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영혼이 없는(생명이 없는) 신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신들, 헛된 신들에게 절하는 자, 또한 깎아 만든 우상을 만들고 부정한 수공품에 절하는 자, 이 곳은 이런 모든 자를 위해 영원한 기업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니라,.

11 장

여기에서 그들은 에녹을 해와 달의 궤적이 있는 넷째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데려다가 넷째 하늘로 데려가서 나에게 모든 연속적인 행적과 해와 달의 모든 빛의 광선을 보여 주었노라.

2 내가 그들의 운행을 재어 그 빛을 비교하여 보니 해의 빛이 달의 빛보다 크더라.

3 그 원과 그 바퀴는 아주 놀라운 속도로 지나가는 바람과 같이 항상 가며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느니라.

4 그 이동과 귀환에는 해 바퀴 오른쪽에 네 큰 별이 동행하고 각 별 아래에 천 개의 별들이 있으며, 왼쪽에 네 개가 있고 그 아래에 각각 천 개의 별이 있어 다 합쳐서 팔천이며, 태양과 함께 출동하노라.

5 낮에는 15 만 천사가 참석하고 밤에는 천명이 참석하노라.

6 또 여섯 날개가 있는 자들이 해바퀴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맹렬한 불길 속으로 출동하고, 백 명의 천사들이 해를 불 붙이어 불타게 하는도다.

12 장

태양의 아주 놀라운 구성원들.

그리고 나는 주목하여 태양의 다른 날아다니는 구성원들을 보았는데, 그 이름은 불사조와 찰키드리이며, 놀랍고 경이로운데, 발과 꼬리는 사자 모양을 하고, 머리는 악어 모양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모습은 무지개처럼 보랏빛을 띠고 있노라. 그 크기는 구백 척이요 그 날개는 천사의 것 같으며 각각 열두 마리가 있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열과 이슬을 품고 참석하여 해와 동행하노라.

2 따라서 해는 회전하고 가다가 하늘 아래에서 떠오르며 그 궤적은 땅 아래로 가도 그 빛이 그치지 아니하도다.

13 장

천사들은 에녹을 데려다가 동편에 태양의 문에 두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동쪽으로 데려다가 해의 문에 두었으니 그곳은 계절의 조정과 일년의 달의 순환과 낮과 밤 시간의 수를 따라 해가 뜨는 곳이라.

2 또 내가 보니 여섯 문이 열렸으니 각 문마다 육십일 스타디아(Stadia)와 사분의 일 스타디움(Stadium)의 크기를 가졌으며 그 문을 실제로 측량한즉 해가 서쪽으로 나가고 그 문을 지나는 길이가 심히 크며 전진하면서 서쪽으로 가는데 일정하며 모든 달에 걸쳐 떠오르며 계절의 연속을 따라 여섯 문에서 다시 돌아가며 이렇게 사계절의 귀환 후에 일년의 기간이 끝나노라.

14 장

그들은 에녹을 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서쪽으로 가서 해가 지는 곳 맞은편 동쪽 문에 대응하는 여섯 개의 큰 문이 열린 것을 내게 보이니 날 수를 따라 삼백육십오와 사분의 일(365 1/4)이라.

2 이와 같이 해가 다시 서쪽 문으로 내려가서 그 빛 곧 그 광채의 위대함을 땅 아래로 거두어 가니, 해의 광채의 면류관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고 사백 명의 천사의 보호를 받으며 태양이 땅 아래에서 수레바퀴를 돌고 밤에 일곱 큰 시간을 머물며 그 궤도의 절반을 땅 아래에서 지내며

그것이 밤 여덟 시에 동쪽 접근에 이를 때에, 그것은 빛과 광채의 면류관을 가져오며 태양은 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른다.

15 장

태양의 구성원인 피닉스와 찰키드리가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피닉스와 찰키드리라고 불리는 태양의 구성원이 노래하기 시작했노라. 그래서 모든 새가 날개를 퍼덕이며 빛을 주시는 자를 기뻐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노래하였노라.

2 빛을 주신 이가 오시어 온 천하에 광명을 주려 하시노라, 그리고 아침 파수꾼이 형체를 갖추나니 곧 태양 광선이요, 땅의 해가 나와 그 광명을 받아 땅의 온 면을 비취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태양의 운행의 계산을 나에게 보여주었노라.

3 그리고 그것이 들어가는 문들은 연중 시간을 계산하는 큰 문들이며, 이러한 이유로 태양은 28 년 동안 그 순환을 지속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위대한 창조물이노라.

16 장

그들은 에녹을 데려다가 다시 동편에 달의 궤도에 두었다.

그 사람들은 나에게 달의 다른 궤도를 보여 주었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면류관을 씌운 열두 개의 큰 문으로, 달이 관습적인 시간에 이 문을 통해 출입하도다.

2 첫 번째 문에서 태양 서쪽으로 들어가니 첫 번째 문으로 정확히 삼십일 일, 두 번째 문으로 정확히 삼십일 일, 세 번째 문으로 정확하게 삼십 일, 넷째 문으로 정확히 삼십 일, 다섯째 문으로 정확히 삼십일 일, 여섯째 문으로 정확히 삼십일 일, 일곱째 문으로 정확히 삼십 일, 여덟째 문으로 정확히 삼십일 일, 아홉 번째 문으로 삼십일 일, 열 번째 문으로 정확히 삼십 일, 열한 번째 문으로 삼십일 일, 열두 번째 문으로 정확히 이십팔 일이더라.

3 달은 동쪽 문의 순서대로 서쪽 문을 통과하여 태양력의 삼백육십오와 사분의 일을 이루며, 음력은 삼백오십사 일을 이루며, 태양 순환의 십이 일이 달에 대해서 부족한데, 그것을 태양력과 태음력의 1 년의 날수의 차라고 한다.

4 [그러므로 대권(Great circle)도 오백삼십이 년을 포함한다]

5 삼 년 동안 사분의 일(1/4) 일을 빼면 사분 일이 정확히 이루니라.

6 그러므로 그것들을 삼 년 동안 하늘 밖으로 옮겨 가되 그 날 수를 더하지 아니함은, 그들은 년의 시간을 완료를 향한 두 개의 새로운 달로, 감소를 향한 다른 두 달로 변경하노라.

7 서쪽 문이 끝나면 돌아와서 동쪽으로 가서 빛을 향하여 주야로 하늘의 순환을 돌며 모든 순환보다 낮고 하늘의 바람보다 빠르고 영과 구성원들과 천사들이 날아 다니고 각 천사에는 여섯 개의 날개가 있더라.

8 그것은 십구 년 안에 일곱 가지 궤도를 가지고 있노라.

17 장

형언할 수 없는 천사들의 노래.

하늘 한가운데서 내가 보니 무장한 군인들이 북과 오르간과 그치지 않는 음성과 감미로운 음성과 감미롭고 끊임없는 목소리와 형언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놀라게 하는 다양한 노래로 주님을 섬기더라, 그 천사들의 노래는 너무나 훌륭하고 놀라워서 나는 그 노래를 듣고 기뻤노라.

18 장

에녹을 다섯째 하늘로 데려가는 일.

그들이 나를 다섯째 하늘로 데려다가 거기 두었더니 거기에서 그리고리라 하는 사람의 모양을 한 군인이 셀 수 없이 많으며 그 키는 거대한 거인보다 더 크며 얼굴은 시들고 그들의 입은 영원히 침묵하더라, 다섯째 하늘에는 봉사가 없으니, 내가 나와 함께 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2 어찌하여 이들이 심히 시들고 그들의 얼굴이 우울하며 그들의 입은 잠잠하니 어찌하여 이 하늘에서 봉사함이 없습니까?

3 그들이 내게 말하되: 이들은 그들의 군주 사타나일과 함께 빛의 주를 배척한 그리고리니, 그 다음은 둘째 하늘에서 큰 흑암에 갇힌 자요, 그 중 셋이 주님의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갔느니라. 에르몬 땅에 이르러 에르몬 산 어깨에서 서원을 어기고 사람의 딸들이 얼마나 좋은지 보고 아내를 삼으며 그 행위로 땅을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모든 세대 동안에 불법과 혼합이 만들어졌고, 거인들이 태어나고 기이한 큰 사람과 거대한 악의가 태어났느니라.

4 그러므로 하나님이 큰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니 그들이 그들의 형제를 위하여 통곡하니 주의 큰 날에 그들이 징벌을 받으리라.

5 그리고 내가 그리고리에게 말하되: '내가 너의 형제들과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큰 고통을 보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주님은 하늘과 땅이 영원히 끝날 때까지 영원히 그들을 땅 아래에 있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6 내가 말하기를: '형제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기다리며 주님 앞에서 섬기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서 당신들의 섬김을 올리지 않느냐 너희가 주님을 심히 노하시게 하지말라'

7 그리고 그들은 나의 훈계를 듣고 하늘에 있는 네 계급에게 말하였노라. 그리고 보라! 내가 그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을 때 네 개의 나팔이 큰 소리로 함께 나팔을 불고 그리고리가 한 목소리로 노래를 터뜨렸고 그들의 목소리는 가련하고 감동적으로 주님 앞에 올라갔노라.

19 장

에녹을 여섯째 하늘로 데려가는 일.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여섯 번째 하늘로 올라갔고, 거기서 나는 일곱 무리의 천사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매우 밝고 매우 영화로우며, 그들의 얼굴은 태양보다 더 빛나고 번쩍그렸으며 그들의 얼굴, 행동 또는 복장에는 차이가 없었노라; 그리고 이들은 명령을 내리고 별의 운행, 달의 변화, 태양의 회전, 세상의 선한 통치를 배우더라.

2 그들이 악행을 보고 계명과 교훈을 만들고, 감미롭고 큰 노래와 모든 찬송을 부르더라.

3 이들은 천사들 위에 있는 대천사들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측량하며 계절과 연도를 다스리는 임명된 천사들이며, 곧 강과 바다와 땅의 열매를 다스리는 천사들이며, 모든 풀을 다스리는 천사로, 모든 살아있는 것에게 먹을 것을 주며, 사람의 모든 영혼과 그들의 모든 행위와 그들의 삶을 주의 면전에 기록하는 천사들이라, 그 가운데에는 불사조 여섯과 그룹

여섯과 여섯 날개를 가진 여섯이 항상 있는데, 한 목소리로 하나로 노래하며, 그들의 노래는 형언할 수 없고, 주님 앞 그의 발등상에서 즐거워하더라.

20 장

그러므로 그들은 에녹을 일곱 번째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나를 그곳에서 일곱 번째 하늘로 들어 올렸고, 나는 거기에서 매우 큰 빛과 큰 천사장의 불의 군대, 무형의 군대, 통치권, 명령과 통치들, 그룹들과 스랍들, 왕좌와 눈 많은 자, 9 개 큰 무리, 빛의 Ioanit 기지를 보았고, 그리고 나는 두려워하고 크게 두려워 떨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나를 데려가서 나를 이끌고 나에게 말하되:

2 '에녹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고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멀리서 내게 보이셨노라. 주님께서 여기 계시니 열 번째 하늘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3 열째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히브리 말로는 아라밧이라 칭하도다.

4 하늘의 모든 군대가 와서 그 계급대로 열 층계 위에 서서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기쁨과 큰 행복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무한한 빛 가운데서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하고, 영광스럽게 그를 섬기고 있더라.

21 장

여기 천사들이 일곱째 하늘 끝에서 에녹을 떠나 그로부터 보이지 않게 가버렸다.

그룹들과 스랍들이 보좌에 둘러섰고 여섯 날개를 가진 눈 많은 자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면전에 서서 그의 뜻을 행하며 그의 온 보좌를 덮으며 주의 면전에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노래하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통치자이시여 주의 영광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도다'

2 내가 이 모든 일을 보고 그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에녹아 우리가 여기까지 너와 함께 가라고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갔으나 그 후에는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3 그리고 나는 일곱째 하늘 끝에 홀로 남아 두려워서 엎드려 속으로 말하되: '화로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4 주님께서 그의 영광스러운 자 중의 하나인 대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에녹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영원토록 주님의 면전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5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속으로 말하되: ‘내 주여 내 영혼이 두려움과 떨림에서 떠나갔나이다 ‘ 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자들을 부르고 그들을 의지하였더니 그들과 함께 나는 주님의 면전에 갔노라.

6 가브리엘이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 같이 나를 붙들어 주님의 면전에 두었노라.

7 또 내가 보니 여덟째 하늘은 히브리 말로 무살롯이라, 계절과 가뭄과 습함과 일곱째 하늘 위에 있는 황도 십이궁도를 바꾸는 곳이라.

8 그리고 나는 히브리어로 쿠차빔이라고 하는 아홉 번째 하늘을 보았는데, 그곳에는 황도 십이궁도의 하늘 처소가 있는 곳이라.

22 장

열 번째 천국에서 대천사 미가엘이 에녹을 주님의 면전으로 인도했습니다.

열 번째 하늘 아라봇에서 내가 보니 주의 얼굴이 불 속에서 빛나는 쇠가 나와서 불꽃을 내며 타는 것 같더라.

2 내가 이와 같이 주님의 얼굴을 보니 그러나 주님의 얼굴은 형언할 수 없고, 놀랍고, 매우 외경심을 일으키도록 장엄하며, 매우, 매우 위대하더라.

3 그리고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존재와 그의 매우 놀라운 얼굴에 대해 내가 누구기에 말할 수 있으랴? 그의 많은 가르침과 여러 가지 음성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지극히 크신 주의 보좌와 그 주위에 서 있는 자들 곧 그룹들과 스랍들의 군대와 그들의 끊임없는 노래와 그의 변함없는 아름다움을 내가 측량할 수 없노라, 누가 그의 영광의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함을 말하리요?

4 내가 엎드려 주님께 절하매 주님께서 그 입술로 내게 이르시되:

5 '에녹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영원토록 내 면전에 서라'

6 천사장 미가엘이 나를 들어올려 나를 주님의 면전으로 인도했노라.

7 주님께서 시험하는 자기 종들에게 이르시되: ‘에녹을 영원히 내 앞에 서게 하라’ 하시니 영광스러운 자들이 주님께 엎드려 이르되: ‘에녹을 주의 말씀대로 하소서’

8 주님께서 미가엘에게 이르시되: ‘가서 에녹을 그의 땅의 옷에서 벗기고 내 향유를 그에게 바르고 내 영광의 옷을 입혀라’

9 미가엘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였노라. 그가 내게 기름을 붓고 나를 입혔는데, 그 향유의 모양은 큰 빛보다 나으며 그의 향유는 단 이슬 같고 그 냄새는 부드럽고 해와 같이 빛나니, 내가 나를 본즉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들 중의 하나와 같더라.

10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일을 기록한 다른 천사장보다 그의 지식이 지혜에서 더 빠른 그의 대천사 프라뷔일을 부르니 주님께서 프라뷔일에게 말씀하시기를:

11 ‘내 창고에서 책들과 속히 쓸 갈대를 꺼내어 에녹에게 주고 너의 손에서 좋은 책과 위로하는 책을 그에게 넘겨 주거라'

23 장

에녹의 글에 대해, 그가 어떻게 그의 놀라운 여행과 천국의 발현을 썼는지, 그리고 자신이 삼백육십육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일, 모든 요소, 그들의 통행과 운행, 천둥 번개, 해와 달, 그 운행과 별의 움직임, 계절, 년, 날, 시, 바람이 일어나는 것, 천사들의 수, 그들의 노래의 구성,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노래와 삶의 말, 계명, 교훈, 감미로운 목소리의 노래, 배우기에 합당한 모든 것을 말해주었노라.

2 그리고 프라뷔일이 나에게 말하되: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우리가 기록했노라. 앉아서 인류의 모든 영혼을 기록하라, 그들 중 많은 이가 태어나노라,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을 위해 준비된 장소도 기록하라, 모든 영혼은 세상이 형성되기 전에 영원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

3 그리고 삼십 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삼백육십육 권의 책을 썼노라.

24 장

하나님이 계시하여 에녹에게 말씀하시고 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큰 비밀에 대하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며 내게 이르시되: '에녹아 가브리엘과 함께 내 왼편에 앉으라'

2 그리고 나는 주님께 절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사랑하는 에녹아, 네가 보는 모든 것과 완성된 모든 것, 내가 무에서 창조한 모든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창조한 모든 것을 심지어 창조 전의 것에 대해서도 너에게 말하리라'

3 에녹아 듣고 이 말을 받으라, 내가 내 천사들에게 내 비밀을 말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시작과 내 끝없는 왕국을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는 나의 창조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노라.

4 만물이 보이기 전에는, 마치 태양이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운행하듯이 나는 홀로 보이지 않는 것들 안에서 돌아다녔노라.

5 그러나 해조차 그 속에 평안이 있으되 내가 평안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만물을 창조하고 있었고, 그리고 기초를 두는 생각과 보이는 피조물을 창조할 생각 때문이라.

25 장

하나님은 가장 낮은 어둠에서 어떻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내려오는지 에녹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장 낮은 부분에서 명령하기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내려오도록 하였고 아도일(Adoil)이 매우 크게 내려왔으며, 내가 그를 보았노라, 보라! 그는 큰 빛의 볼록한 표면을 가졌더라.

2 그리고 내가 그에게 말하되: '아도일아, 풀려라, 그리고 보이는 것이 네게서 나오게 하라'

3 그가 풀려 나오매 큰 빛이 나오더라. 그리고 나는 큰 빛의 한가운데에 있었고, 빛으로부터 빛이 태어났고, 큰 시대가 나아 왔고, 내가 창조하려고 생각했던 모든 창조물을 보여주었노라.

4 그리고 그것이 내가 보니 좋았더라.

5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보좌를 세우고 그 위에 앉으며 빛에게 이르되: ‘너는 더 높이 올라가서 보좌 위에 높이 서서 가장 높은 것의 기초가 되라’

6 그리고 빛 위에는 다른 것이 없으며, 나는 몸을 젖혀 내 보좌에서 올려다보았노라.

26 장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두 번째로 무겁고 매우 붉은 아르카스(Archas)가 나오도록 부르신다.

그리고 나는 가장 낮은 것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되: ‘아르카스는 단단하게 나오라’ 그리고 그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단단하게 나왔노라.

2 그리고 아르카스는 단단하고 무거우며 매우 붉게 나왔노라.

3 또 내가 말하기를 '아르카스여, 열리라, 그리고 네게서 태어나라' 하였더니 그가 풀려났고, 한 시대가 도래하여 아주 크고 심히 어두우며 모든 낮은 것들의 창조를 수반하였으니 내가 보니 좋았더라, 그에게 말하되:

4 ‘너는 아래로 내려가서 네가 견고하여 낮은 것의 기초가 되라’ 그렇게 되었고, 그가 내려가서 자신을 고정하고 낮은 것의 기초가 되었으니 흑암 아래에는 아무 것도 없느니라.

27 장

하나님이 물의 기초를 세우시고 빛으로 그것을 두르시고 그 위에 일곱 섬을 세우신 일에 관하여.

그리고 나는 빛과 어둠에서 빠져 나오라고 명령했고, 나는 '두꺼워지라'고 말했노라, 그것은 그렇게 되었노라. 내가 그것을 빛으로 펴서 그것은 물이 되었으며, 내가 그것을 어두움 위에 그것을 펼쳤으며, 빛 아래로 펼쳤노라, 그리고 그때에 내가 물을 견고하게 하였나니 곧 물이 바닥이 없고 물 주위에 빛의 기초를 만들고 안쪽에 일곱 개의 구를 만들고 그것(물)을

크리스탈같이 촉촉하고 딱딱하게, 즉 유리처럼 형상화했으며, 그리고 물의 할례와 다른 요소들, 그리고 나는 그들 각각에게 그들의 길과 하늘에 있는 일곱 별들을 그들 각각에게 보여주었으며 그들이 이같이 갔으니, 이 모든 것이 내가 보니 좋았더라.

2 또 내가 빛과 어둠 사이를 나누었으니, 즉 물 한가운데 여기 저기, 내가 빛더러 낮이 되라 하고 어두움에게 밤이 되라 하였노라.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28 장

그 주에 하나님이 7 일 동안 에녹에게 그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과 사람에 이르기까지 움직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가.

또 내가 천구를 견고하게 하고 천하의 낮은 물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되게 하고 혼돈을 마르게 하니 그대로 되었노라.

2 내가 파도로 단단하고 큰 바위를 창조하고 그 바위에서 마른 것을 쌓아서 마른 것을 땅이라 칭하며 땅의 한가운데를 무저갱이라 하였나니, 바닥이 없다는 뜻이라, 내가 한 장소에 바다를 모았고 요크(기반)로 그것을 함께 묶었노라.

3 그리고 내가 바다에게 말하되: '보라, 내가 네게 영원한 한계를 주리니 네가 네 지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4 그렇게 내가 신속히 궁창을 만들었느니라. 이날 나는 나를 '최초로 창조된 자'라고 불렀노라.

29 장

저녁이 되고 다시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불의 본질.

그리고 모든 하늘 군대에 대해 나는 형상과 불의 본질을 형상화했고, 내 눈은 매우 단단하고 견고한 바위를 바라보았고, 내 눈의 번쩍임에서 번개가, 물 속에 있는 불과 불 속에 있는 물, 둘 다인 놀라운 본성을 받았노라. 하나가 다른 것을 꺼뜨리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가 다른 것을

말리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번개는 해보다 더 밝고 물보다 더 부드럽고 단단한 바위보다 더 견고하도다.

2 또 내가 그 바위에서 큰 불을 끊어 내어 그 불에서 무형의 열 천사의 군대 집단을 창조하였으니 그들의 무기는 불같고 그들의 의복은 타오르는 불꽃이라, 내가 명하여 각각 자기의 지위에 서라고 하였노라.

여기서 사타나일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높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3 천사의 지위에서 벗어난 한 천사가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를 떠나 자기 보좌를 땅 위의 구름보다 더 높은 곳에 두어 나의 권세와 동등하게 되려는 불가능한 생각을 품었노라.

4 내가 그를 그의 천사들과 함께 높은 곳에서 내쫓았더니 그가 무저갱 위로 끊임없이 공중을 날고 있었노라.

30 장

그리고 내가 온 하늘을 창조하였고, 셋째 날이라.

삼일 째 날에 내가 땅에 명하여 크고 소출이 많은 나무를 자라게 하고 언덕을 만들고 씨를 뿌려 낙원을 가꿨으며 그것을 둘러싸고 무장한 수호자로 불타오르는 천사를 두어 새롭게 창조했노라.

2 저녁이 되고 넷째 날 아침이 되니,

3 넷째 날에 나는 천구에 큰 광명이 있으라고 명하였노라.

4 가장 위의 첫 번째 구에는 크루노 별, 두 번째 구에는 아프로디트, 세 번째에는 아리스, 다섯 번째에는 제우스, 여섯 번째에는 에르미스, 일곱 번째에는 더 작은 달을 놓았고 더 작은 별들로 장식했노라.

5 그리고 더 아래쪽에는 해를 두어 낮을 밝혔으며 달과 별을 두어 밤을 밝히게 하였느니라

6 해는 각 동물(황도 12 궁도의 별자리)에 따라 운행해야 하고, 나는 달들의 연속성과 그들의 이름들과 일생, 그들의 천둥과 그들의 시간 표시, 어떻게 그들이 계속되어야 하는지를 지정하였노라.

7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니라.

8 다섯째 날에 내가 바다를 명하여 물고기와 깃털 달린 여러 종류의 새와 땅을 기거나 네 발로 땅을 다니거나 공중을 나는 모든 짐승, 수컷과 암컷, 그리고 생명의 영을 호흡하는 모든 영혼을 낳게 하였노라.

9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 되니라.

10 여섯째 날에 나는 일곱 조화로 사람을 창조하도록 내 지혜에 명령했노라. 하나는 땅에서 그의 살이라; 둘, 이슬에서 나온 그의 피; 셋, 해로부터 그의 눈; 넷, 돌에서 그의 뼈; 다섯, 천사의 신속함과 구름으로부터의 그의 예지; 여섯, 그의 땅의 풀에서 핏줄과 털; 일곱, 내 호흡과 바람에서 그의 영혼.

11 그리고 나는 그에게 일곱 본성을 주었노라. 육체는 듣기, 눈은 보기, 영혼은 냄새, 핏줄은 촉각, 피는 맛, 뼈는 인내, 예지에는 감미로움(즐거움)을 주었노라.

12 내가 정교한 말을 생각해내어 내가 사람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과 보이는 것으로 창조하였나니 둘 다 그의 죽음과 생명과 형상이라, 그는 어떤 창조된 것과 같이 말을 할 줄 알고, 큰 것 안에서 작고, 작은 것 안에서 크도다, 내가 사람을 땅에 세웠노니 땅에서는 존귀하고 위대하고 영화로운 둘째 천사라, 그리고 내가 그를 세워 땅을 다스리게 하고 나의 지혜를 갖도록 하였으며, 땅에 그와 같은 자가 내 모든 피조물 중에 없느니라.

13 또 내가 동 서 남 북 사방으로부터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고 그를 위해 특별한 네 별을 세웠으며, 그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고 그에게 두 길을 보여 주었으니 빛과 어둠이라, 그리고 나는 그에게 말하되:

14 '이것이 좋고 저것이 나쁘다', 그가 나에게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미움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알아야 했으며, 그의 종족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15 내가 그의 성품을 보았으나 그는 자신의 본성을 보지 못하였으니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죄를 지을 것이요, 그리고 나는 말하되 '범죄 후에 사망 외에 무엇이 있으랴'

16 내가 그를 잠들게 하고 그가 잠들었더라, 내가 그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여 그를 위해 아내를 지었으니,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그에게 죽음이 이르렀노라, 그의 마지막 말을 취하여 그녀의 이름을 엄마라 불렀으니 곧 하와니라.

31 장

하나님은 아담에게 낙원을 주시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땅에 생명이 있고 나는 동편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여 그가 언약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게 하였노라.

2 내가 하늘을 그에게 열어 그로 하여금 천사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과 어둠이 없는 빛을 보게 하였노라.

3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낙원에 있었고, 마귀는 아담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고 통제하기 위해 내가 다른 세상을 창조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노라.

4 마귀는 낮은 곳에 거하는 악령이라, 도망자로 그가 하늘로부터 소토나(Sotona)*을 만들었으니 그의 이름이 사타나일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가 천사와 다르게 되었으나, 의와 죄에 대한 그의 이해력에 한하여 그의 본성은 그의 예지를 바꾸지 않았노라.

5 또 그가 자기의 정죄와 자기가 전에 지은 죄를 이해하매 아담에 대한 생각을 품고 이와 같은 모양으로 하와에게 들어가서 꾀었으나 아담은 손대지 아니하였노라.

6 내가 무지를 저주하였거니와 내가 전에 축복한 것을 저주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사람이나 땅이나 다른 피조물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의 악한 열매와 그의 행위를 저주하였노라.

*소토나(Sotona): 슬라브어로 사탄, 마귀

32 장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은 아담을 '내가 너를 취한 곳'으로 그를 땅으로 보내시지만, 앞으로 올 모든 해 동안 그를 파멸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에게 말하였노라: '너는 땅이니 내가 너를 취한 땅으로 네가 가리라, 내가 멸하지 아니하나 내가 너를 취한 곳으로 보내노라.

2 그러면 나는 나의 재림 때에 다시 너를 취할 수 있노라!

3 그리고 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내 모든 피조물을 축복했노라. 그리고 아담은 낙원에서 다섯 시간 반 있었노라.

4 그리고 내가 일곱째 날을 축복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모든 일에서 쉬는 안식일이니라.

33 장

하나님이 에녹에게 이 세상의 나이 곧 칠천 년이 있음을 보이셨고 여덟번 째 천 년은 끝이니 해도 달도 주도 날도 없습니다.

또 내가 여덟째 날을 정하여 여덟째 날이 내가 일한 후에 처음으로 창조된 날이 되게 하고, 처음 일곱째 날이 일곱째 천 년의 형태로 순환하게 하고 팔천(년)의 시작 때에 세지 아니하는 끝이 없는 시간이 있으리라, 년도 월도 일주일도 날도 시도 없으리라.

2 이제 에녹아, 내가 네게 모든 것을 말했으며 네가 모든 것을 깨달았노라, 하늘에 대하여 본 모든 것과 땅에서 본 모든 것과 나의 큰 지혜로 책에 기록한 모든 것과 내가 가장 높은 기초에서부터 낮은 것과 끝까지 고안하고 창조한 모든 것, 나의 창조물에는 조언자도 없고 상속자도 없느니라.

3 나는 스스로 영원하며 손으로 지음 받지 않았으며 변함이 없느니라.

4 내 생각이 나의 조언자요, 내 지혜와 내 말이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그들이 여기에 서있는지 그리고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모든 것을 내 눈으로 관찰하노라.

5 내가 얼굴을 돌이키면 모든 것이 멸망하리라.

6 그리고 에녹아, 마음에 세기고, 너에게 말씀하시는 자를 알고, 네가 기록한 책들을 가지라.

7 또 내가 너를 인도한 사무일과 라구일을 네게 주고 책도 주리니 땅에 내려가서 너의 아들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과 네가 본 것, 즉 낮은 하늘에서, 내 보좌 그리고 모든 군대까지 다 네 아들에게 말하라.

8 내가 모든 군대를 창조하였으되 나를 대적하거나 내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느니라. 모두가 나의 왕조에 복종하고 내 유일한 통치를 위해 일하노라.

9 그들에게 필적된 책들을 주라, 그들이 그것을 읽고 만물의 창조주로 나를 알고 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달을 것이라.

10 또 그들로 너의 손으로 쓴 책들을 자손에서 자손에게로, 세대에서 세대로, 나라에서 나라로 전달되게 하라.

11 또 에녹아, 내가 네 조상 아담과 셋과 에노스와 가이난과 마할랄렐과 네 아버지 야렛의 필적을 위하여 나의 중재자 천사장 미가엘을 네게 주리라.

34 장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과 남색 음행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므로 그들에게 대홍수를 내리십니다.

그들이 내 계명과 내 멍에를 버리고 무익한 씨가 올라왔나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내게 절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헛된 신들에게 절하기 시작하며 나의 연합을 부인하여 온 땅을 거짓, 범죄, 서로를 향한 가증한 음행, 그 밖의 모든 부정한 악을 행하는 것인데, 이는 관계에서 가증한 것이라.

2 그러므로 내가 땅에 홍수를 내려 모든 사람을 멸하고 온 땅이 함께 무너져 큰 흑암에 이르게 하리라.

35 장

하나님은 에녹 지파의 의인 한 사람을 그의 온 집과 함께 남겨 두셨는데, 그는 그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을 행했습니다.

보라, 그들의 씨에서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이나, 훨씬 후에,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매우 탐욕스러울 것이라.

2 그 세대를 일으키시는 이가 네 손으로 쓴 책들과 너의 조상들의 책들을 그가 세상의 수호자임을 지적해야 할 자들과 나의 이름을 헛되이 인식하지 아니하는 나의 기쁨의 일꾼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리라.

3 그들이 다른 세대에게 말할 것이요, 읽은 자들은 그 후에 처음보다 더 영화롭게 되리라

36 장

하나님은 에녹에게 땅에서 삼십 일 동안 살면서 그의 아들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교훈을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삼십 일 후에 그는 다시 하늘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에녹아, 내가 너에게 기간을 주노니, 삼십 일 동안 네 집에서 지내고 네 아들들과 온 집에 고하여 모든 사람이 네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내 얼굴 앞에서 듣게 하여,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그들이 읽고 깨닫게 되리라.

2 그들이 항상 내 계명을 지키고 너의 손으로 쓴 책들을 읽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

3 그리고 삼십 일 후에 내가 다시 내 천사를 보내리니 그가 땅과 네 아들들에게서 너를 내게로 데려오리라.

37 장

여기 주님께서 한 천사를 불렀다.

주님께서 나이든 천사 중에 하나를 불렀는데, 끔찍하고 위협적이었는데, 그를 나의 옆에 두셨노라, 그 모양은 눈과 같이 희고 그의 손은 얼음과 같고 큰 서리 같은 모습을 가졌는데 그가 내 얼굴을 얼렸으니, 이는 내가 화로의 불과 태양의 열기와 공기의 서리를 견디지 못함과 같이 내가 주님의 떨림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

2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녹아 여기서 네 얼굴이 얼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

38 장

므두셀라는 계속해서 희망을 품고 밤낮으로 아버지 에녹을 그의 침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처음에 인도한 천사들에게 이르시되 '에녹을 너희와 함께 땅으로 내려가게 하고 정한 날까지 그를 기다리라'

2 그리고 그들은 나를 밤에 내 침상에 눕혔노라.

3 그리고 므두셀라는 내가 올 것을 기대하고 밤낮으로 내 침상에서 깨어 있었노라. 그가 내가 오는 것을 듣고 두려워하여 내가 그에게 말하되 '내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하리라'

39 장

에녹은 그의 아들들에게 말할 때 울며 크게 통곡하면서 자비로운 훈계를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주의 뜻에 따라서 하노니 너희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

2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르러 내 입술이 아니라 주님의 입술로 말하노니, 모든 과거의 것과 모든 현재의 것과 심판 날까지 있을 모든 미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노라.

3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이르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 입술의 말 곧 너희를 위하여 크게 된 사람의 말을 듣거니와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본 자니 불 속에서 빛나는 철과 같이 불꽃을 튀며 타느니라.

4 너희는 이제 내 눈, 너희에게 의미가 있는 큰 사람의 눈을 보지만 나는 주님의 눈을 보았으니, 태양 광선처럼 빛나고 사람의 눈을 경외심으로 가득 채우셨노라.

5 내 자녀들아 이제 너희는 너희를 돕는 자의 오른손을 보거니와, 나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도우심 같이 하늘을 채우시는 것을 보았노라.

6 너는 너의 자신과 같이 나의 일의 경계를 보거니와, 나는 주의 한량없고 완벽하고 끝이 없는 경계를 보았노라.

7 너희가 내 입술의 말을 듣거니와, 그치지 아니하는 구름의 격동 안의 거대한 천둥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도다.

8 이제 나의 자녀들아 땅의 아버지의 설교를 들으라, 땅의 통치자의 얼굴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경외감으로 가득차겠느냐, 하늘의 통치자, 산 자와 죽은 자의 지배자, 그리고 하늘 군대의 통치자의 얼굴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더 떨리고 경외감으로 가득차겠느냐. 누가 그런 끝없는 고뇌을 견딜 수 있겠느냐?

40 장

에녹은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것, 즉 그가 보고 듣고 기록한 모든 것에 대해 진정으로 그의 자녀들을 훈계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자녀들아, 내가 모든 것을 아나니 이는 주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요, 이것을 내 눈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음이라.

2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하였으니 곧 하늘들과 그의 끝과 그 충만함과 모든 군대와 그들의 운행하는 것이니라.

3 내가 별들, 그 거대하고 셀 수 없는 무리들을 측량하였노라.

4 어떤 사람이 그들의 회전과 그들의 입구를 보았느냐? 내가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할 동안에는 천사들도 그들의 수를 알지 못함이라.

5 그리고 나는 태양의 궤도와 그 빛을 측량하며 시간을 계수하였으며, 땅에 두루 다니는 모든 것을 내가 또 기록했으며, 내가 길러지는 것과 땅에서 나는 모든 뿌린 씨와 뿌리지 않은 씨와 모든 식물과 모든 풀과 모든 꽃과 그 달콤한 향기와 그들의 이름과 구름이 머무는 곳과 그들의 구성과 그들의 날개와 어떻게 비와 빗방울을 간직하는 지를 썼노라.

6 내가 만물을 조사하여 천둥과 번개의 길을 기록하였으며 그들이 내게 관문과 그들의 수호자들과 그들의 발생과 가는 길을 보여 주었노라, 그것은 무거운 사슬과 맹렬함에 의해 성난 구름을 던지고 땅의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도록 사슬로 부드럽게 풀어지느니라.

7 내가 눈의 보물 창고를 기록하고 춥고 몹시 차가운 공기의 창고를 기록하고 그들의 계절의 키홀더*를 관찰하였으니 그가 그것들로 구름을 채우고 그 보물 창고를 소진시키지 아니하니 하더라.

*키홀더: 관리자

8 또 내가 바람이 쉬는 곳을 기록하고 그들의 키홀더가 저울과 측정기를 어떻게 지니고 있는지 보았노라. 먼저 그들은 저울에 그들을 올리고, 그리고 다른 저울에 올린다. 그리고 그 분량대로 노련하게 온 땅에 퍼지느니라, 그렇지 않다면 강력한 호흡으로 그들이 땅을 흔들리게 할 것이라.

9 또 내가 온 땅과 그 산들과 모든 언덕과 들과 나무와 돌과 강과 내가 기록한 모든 것과 땅에서 일곱째 하늘까지의 높이와 가장 낮은 지옥까지의 깊이와 심판의 장소, 그리고 매우 거대하고 열려있는 통곡하는 지옥을 측량하였노라.

10 또 나는 죄수들이 무한한 심판을 기다리며 고뇌 중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11 또 내가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모든 판결(문장)과 그들의 모든 행위를 기록했노라.

41 장

에녹이 아담의 죄를 한탄했다.

그리고 나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모든 시대의 모든 조상들을 보았고,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불명예의 파멸에 대해 말했노라:

2 '나와 내 선조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화가 있도다'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3 '복 있는 사람은 태어나지 아니한 자와 태어났지만 주님의 얼굴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한 자로, 그가 이 곳에 오지 아니하며 이 멍에를 메지 아니할 것이라!'

42 장

에녹은 열쇠를 쥐고 있는 자와 지옥문을 지키는 경비원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옥문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와 지키는 자들을 보라, 큰 뱀과 같고, 꺼진 등불 같은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불 눈과 그 날카로운 이를 보라, 또 내가 주의 모든 일들을 보았나니, 어떻게 그들이 옳은지, 반면에 사람의 행위가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하며, 나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에서 알려지느니라.

43 장

에녹은 그의 자녀들에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측량하고 기록했는지 보여줍니다.

내 자녀들아, 내가 모든 행위와 모든 헤아림과 모든 의로운 판단을 측량하여 기록하였느니라.

2 어떤 해(year)가 다른 해보다 귀한 것 같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귀하고, 더러는 많은 재물로, 더러는 마음의 지혜로, 더러는 특별한 지성으로, 더러는 교활함으로, 어떤 이는 입술의 침묵으로, 다른 이는 깨끗함으로, 어떤 이는 힘으로, 다른 이는 우아함으로, 어떤 이는 젊음으로, 다른 이는 예리한 재치로, 어떤 이는 몸매로, 다른 이는 감성으로, 모든 곳에서 들을지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보다 더 나은 이가 없나니 그는 장차 올 때에 더욱 영화로우리라.

44 장

에녹은 그의 아들들에게 사람이 작든 크든, 사람의 얼굴에 욕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기 얼굴의 모양대로 주님께서 사람을 크고 작게 만드셨도다.

2 누구든지 통치자의 얼굴을 욕하고 주님의 얼굴을 가증히 여기는 자는 주님의 얼굴을 멸시하는 자요, 손해없이 어떤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은 주님의 크신 진노가 그를 멸하실 것이요, 비난하며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자는 주님의 큰 심판에서 끊어지리로다.

3 사람에 대한 악의로 마음을 이끌지 아니하며 상한 자와 정죄받은 자를 도우며 무너진 자를 일으키며 궁핍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큰 심판의 날에 모든 추와 모든 측량과 평형추가 시장에 있는 것과 같게 될 것이니 곧 그들이 저울에 달려 시장에 서며 각 사람이 자기의 측량을 알게 되며 자기의 측량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45 장

하나님은 사람에게 제사나 번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정결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 면전에서 제물을 바치는 일을 서두르면, 주님은 그의 일을 허락하심으로 그 제물을 서두르실 것이라.

2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자기 등불을 높이며 참된 판단을 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그의 보배를 늘리지 아니하시리라.

3 주님께서 떡이나 등불이나 고기(소)나 다른 제사를 요구하실 때에는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결한 마음을 요구하시며 그리고 오직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시노라.

46 장

땅의 통치자가 사람에게서 가증하고 더러운 예물을 받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어찌 더러운 예물을 가증히 여기시사 그것을 진노하심으로 보내버리시고 그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 입술의 말을 받으라.

2 누구든지 땅의 통치자에게 예물을 가져오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통치자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 그가 그에게 노하지 아니하며 그의 예물을 거절하지 아니하며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느냐?

3 만일 어떤 사람이 혀의 속임수로 자기를 선하게 보이게 하고 마음에 악을 품으면 다른 사람은 그의 마음의 간사함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의 거짓이 모두에게 드러났으니 그 자신이 정죄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4 주님께서 큰 빛을 보내실 때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리니 아무도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47 장

에녹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입술로 가르치고 이 책의 필사본을 그들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자녀들아,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너희 아버지의 말씀을 잘 기억하거라.

2 네 아버지의 손으로 쓴 이 책들을 가져다가 읽어라.

3 책이 많고 그 책에서 주의 모든 일 곧 창조의 처음부터 있었던 일과 세상 끝날까지 있을 모든 일을 그 책에서 배우리라.

4 너희가 내 이 책을 준수하면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는 하늘에나 땅에나 가장 낮은 곳이나 세상의 기초에도 주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이라.

5 주님께서 미지의 것에 기초를 두셨고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을 펴셨으며 땅을 물 위에 고정하시고 셀 수 없는 피조물을 창조하시되, 누가 물과 고정되지 아니한 것의 기초와 땅의 티끌이나 바다의 모래나 빗방울이나 아침 이슬이나, 바람의 호흡을 셀 수 있느냐? 누가 땅과 바다를 채우며 겨울을 녹지 않게 하랴?

6 내(주)가 별들을 불에서 재단하여 하늘을 장식하며 그들 가운데 두었노라.

48 장

일곱 개의 구를 따라가는 해의 경로.

해가 일곱 하늘의 구를 따라 가니 곧 백팔십이 보좌를 정하여 짧은 날에 내려가고 또 백팔십이 보좌를 정하여 큰 날에 올라가노라, 그리고 그는 그가 쉬는 두 개의 보좌를 가지고 있는데, 달의 보좌 위에서 이리저리 회전하며, Tsivan* 달의 열일곱 번째 날부터 Thevan* 달까지 내려가고, Thevan 달의 열일곱 번째 날부터 올라가느니라.

*Tsivan: 유대력 3 번째 달

*Thevan: 유대력 8 번째 달

3 이와 같이 땅에 가까워지면 땅이 있어 그 열매를 기르고 그것이 멀어지면 땅이 슬프고 나무와 모든 열매에 꽃이 피지 않느니라.

4 그가 이 모든 것을 측량하시되 시간을 잘 측량하시며 그의 지혜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측량하시느니라.

5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만물을 보이게 하셨으니 자신은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6 내 자녀들아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알게 하고 그 책들을 너희 자녀에게, 너희 대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있는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리니 그들이 그것을 받아 더욱 어떤 음식이나 세상의 달콤한 것보다 이 책들을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읽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라.

7 그리고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자들, 이 책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무서운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8 그들의 멍에를 메고 그들을 끌고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큰 심판의 날에서 놓일 것 임이라.

49 장

에녹은 아들들에게 하늘로든 땅으로든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어머니의 태에서 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맹세하노니, 나는 어떤 서약로나 하늘로나 땅으로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맹세하지 아니하노라.

2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안에 서약도 없고 불의도 없도다. 오직 진실뿐이라'

3 사람에게 진리가 없으면 '예, 예' 또는 '아니요, 아니요'로 맹세하게 할지라.

4 또 내가 네게 맹세하노니, 그렇도다, 그렇도다, 모태에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미 전에 각 사람을 위하여 영혼의 안식을 위하여 예비된 처소가 있느니라,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는 것이 얼마나 의도된 것인지 정한 척도도 있느니라.

5 그렇도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 사람의 모든 영혼을 위한 처소가 미리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

50 장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숨겨져 있을 수 없고 그의 일도 숨겨져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하며 공격과 모욕을 견디고 과부와 고아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일을 기록으로 남겼고,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숨겨질 수 없고 그의 일도 감추어진 채 남아 있을 수 없느니라.

2 나는 모든 것을 보노라.

3 그러므로 이제 내 자녀들아,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 위하여 너희 날수를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보내라.

4 모든 상처와 모든 피해와 모든 악한 말과 공격을 주님을 위하여 견디어라.

5 만일 악한 보복이 너희에게 닥치거든 그것을 이웃에게나 원수에게 되돌리지 말라, 이는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되돌리실 것이며 큰 심판의 날에 너희의 보복자가 되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여기 사람들 중에는 보복이 없을지라.

6 너희 중에 누구든지 형제를 위하여 금이나 은을 쓰는 자는 오는 세상에서 많은 보화를 얻으리라.

7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해치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라.

51 장

에녹은 그의 아들들에게 보물을 땅에 숨기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명합니다.

네 힘을 따라 가난한 이들에게 네 손을 내밀어라.

2 네 은을 땅에 숨기지 말라.

3 고난 중에 있는 신실한 사람을 도우라. 그러면 고난이 너희의 환난 때에 너희를 찾지 아니하리라.

4 또 너희가 너희에게 임하는 모든 견디기 어렵고 모진 멍에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짊어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심판 날에 상을 얻으리라

5 창조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침과 낮과 저녁으로 주님의 거처에 들어가는 것이 좋도다.

6 호흡하는 모든 것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이 그에게 찬송을 돌려드리도다.

52 장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

입술을 열어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 누구든지 자기 이웃을 멸시와 비방함으로 입술을 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을 멸시함이라.

3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4 입술을 열어 저주와 욕설을 하는 자는 평생에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5 주님의 모든 일을 찬양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6 주의 창조물을 멸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느니라.

7 내려다보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자는 복이 있도다.

8 자기 것이 아닌 것의 멸망을 바라보고 바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9 태초부터 있던 그 조상의 터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 그 조상의 규례를 굽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11 화평과 사랑을 심는 자는 복이 있도다.

12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괴롭히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13 겸손한 혀와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14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검이 있으나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15 이는 큰 심판의 날에 이 모든 것이 다는 저울과 책에 드러날 것임이니라.

53 장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계시니 심판 날에 우리를 위하여 앞에 서시리라' 하지 말지니 아버지는 아들을 도울 수 없고, 아들도 아버지를 돕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이제 나의 자녀들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 죄를 지은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

2 내가 각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모든 시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행해진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무도 나의 집필에 관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나니, 이는 주님께서 사람의 모든 생각, 마음의 보물창고에 있는 그 모든 생각이 헛된 것을 보심이라.

3 내 자녀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잘 기억하여, 너희가 후회하며 '우리 아버지는 어찌하여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지 않도록 하라.

54 장

에녹은 아들들에게 그 책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지시합니다.

그 때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책들이 평강의 유산이 되게 하라.

2 그것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가르쳐서 주님의 지극히 크고 기이한 일을 보게 하라.

55 장

여기에서 에녹은 그의 아들에게 보여주며, 눈물을 흘리며 말하되: '나의 자녀들아, 내가 하늘에 올라갈 시간이 가까이 왔다. 보라, 천사들이 내 앞에 서 있다'

내 자녀들아, 보라, 내 기간의 날과 시간의 바퀴가 다가왔도다.

2 나와 함께 갈 천사들이 내 앞에 서서 나를 강권하여 너희를 떠날 것이며, 그들은 여기 지상에 서서 그들에게 말씀되어진 것을 기다리고 있노라.

3 내가 내일 하늘, 가장 높은 예루살렘, 나의 영원한 기업에 올라가리라.

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주님의 모든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 앞에서 행하라.

56 장

므두셀라는 그의 아버지에게 축복을 구하여 그가 아버지에게 먹을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므두셀라가 그의 아버지 에녹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당신의 눈에 좋게 보이시거든, 내가 당신의 면전에 만들게 하사 당신이 우리 처소와 당신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당신의 백성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떠나시리라'

2 에녹이 그 아들 므두셀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얘야 들으라 주님께서 그의 영광의 향유로 내게 기름을 부으신 때부터 내 속에 음식이 없었고 내 영혼이 땅의 즐거움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내가 또한 어떤 땅의 것도 원하지 아니하노라!'

57 장

에녹은 그의 아들 므두셀라에게 그의 모든 형제들을 불러 모으게 명령했습니다.

내 아들 므두셀라야, 네 모든 형제와 우리 가족과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내가 그들과 이야기하고 내게 계획된 대로 떠나게 하라

2 그리고 므두셀라는 급히 그의 형제 레김과 리만과 우간과 케르미온과 가이다드와 백성의 모든 장로들을 그의 아버지 에녹의 얼굴 앞으로 불러 모았노라,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말하되:

58 장

에녹이 그의 아들들에게 준 교훈.

내 자녀들아, 오늘 내 말을 들으라.

2 그 때에 주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땅에 임하실 때에 그가 스스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돌보사 이 모든 것들 후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땅의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불러서 우리 조상 아담의 면전으로 인도하셨느니라.

3 아담은 땅에 사는 모든 것의 이름을 지어 주었노라.

4 주님께서 그를 만물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만물을 그의 손 아래 그에게 복종케 하시며 그들을 벙어리로 만들고 둔하게 하여 사람에게 명령을 받게 하셨으며 그에게 복종하며 순종하게 하셨느니라.

5 이와 같이 주님께서 각 사람을 그 모든 소유의 주인으로 창조하셨느니라.

6 주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짐승의 한 영혼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서 사람의 영혼이 그들의 짐승을 심판하게 하시니 이는 사람이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이라.

7 그리고 사람의 모든 영혼이 수효대로 있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짐승의 영혼은 큰 심판 때까지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 만약 사람이 동물을 나쁘게 기른다면, 그들이 사람을 고소할 것이라.

59 장

에녹은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에서 오는 것으로 인하여 고기를 만지지 말아야 함을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짐승의 영혼을 더럽히는 자는 자기 영혼을 더럽히노라.

2 사람이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자기 영혼을 낫게 하려 함이라.

3 그들이 정결한 짐승과 새를 제물로 바치면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가 그의 영혼을 고침이니라.

4 모든 것이 너희에게 양식으로 주어졌으니 그것을 네 발로 묶으라, 그것은 치료에도 좋으니라, 그가 그의 영혼을 고침이라.

5 그러나 상처 없이 짐승을 죽이는 자는 자기 영혼을 죽이고 자기 육체를 더럽히느니라.

6 무릇 짐승에게 무엇이든 은밀히 해를 가하는 자는 악행이라, 그가 자기 영혼을 더럽히느니라.

60 장

사람의 영혼을 해치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치나니 그의 육체에 치유는 없으며 영원히 고침이 없느니라. 무기로도, 혀로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죽이고 자기 몸도 죽이나니 영원히 고침이 없느니라.

2 사람을 올무에 빠뜨리는 자는 자신도 그 속에 갇히게 되리니 영원히 고침이 없느니라.

3 사람을 그릇에 넣는 자는 큰 심판 때에 그의 보응이 영원히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4 굽게하는 일을 하거나 어떤 영혼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자는 항상 자기를 위해 정의를 세우지 못할 것이라.

61 장

에녹은 그의 아들들에게 불의를 피하고 종종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의 수고를 나누어 주라고 지시합니다.

이제 나의 자녀들아, 주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불의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라.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위해 무언가를 구하는 것 같이 모든 살아 있는 영혼에게 행할지니 내가 모든 것을 아노니 큰 때에 사람을 위하여 거할 처소가 많이 예비되었음이요, 선한 자를 위해서는 선한 것이 그리고 악한 자를 위해서는 악한 것이, 셀 수 없이 많노라.

2 좋은 집에 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악한 집에는 평안도 없고 돌아오지도 못함이니라.

3 내 자녀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들으라! 사람이 그 마음에 좋은 생각을 하고 주님의 면전에서 그의 수고로부터 예물을 가져오되 그의 손이 그것들을 만들지 않았노라, 그때 주님께서 그의 손의 노동을 그의 얼굴에서 떠나 보낼 것이며 그는 그의 손의 노동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

4 만일 그의 손이 그것을 이루었으나 그의 마음이 불평하며 그의 마음이 끊임없이 불평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62 장

믿음으로 예물을 가져오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죽은 후에 회개가 없음이라.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예물을 주님의 얼굴 앞에 드리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죄 사함을 얻을 것임이라.

2 그러나 그가 때가 되기 전에 그의 말을 돌이키면 자신에 대해 회개가 없느니라, 시간이 지나고 약속된 것을 자기 뜻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죽은 후에는 회개가 없느니라.

3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때가 오기 전에 하는 것이 때문이라, 사람 앞에는 다 속임이요, 하나님 앞에는 죄니라.

63 장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공평히 나누어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헐벗은 자를 옷 입히고 굶주린 자를 배불리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이라.

2 그러나 그의 마음이 불평하면 그는 두 배의 악을 행하는 것이라. 자신과 자기가 준 것들을 망치는 것이라. 그리고 그 때문에 보상을 찾지 못할 것이라.

3 만일 자기 마음이 양식으로 가득하고 자기 몸이 자기 의복으로 가득하면 그는 멸시를 행하고 가난에 대한 그의 인내를 상실하고 그의 선행에 대한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4 자만하고 교만한 자는 다 주님에게 미움이 되며, 거짓을 옷 입은 모든 거짓된 말 그것은 죽음의 칼날에 베임을 하여 불에 던져 영원히 사르리라.

64 장

주님께서 에녹을 부르시매 백성이 의논하여 Achuzan 이라 하는 곳으로 가서 그에게 입맞추었습니다.

에녹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 가까이 그리고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에녹을 부르신 것을 들었고 그들은 함께 의논했도다:

2 '가서 에녹에게 입 맞추자' 이천 명이 모여서 에녹과 그의 아들들이 있는 Achuzan 에 이르렀도다.

3 백성의 장로들과 온 회중이 와서 엎드려 절하고 에녹에게 입맞추고 그에게 이르되:

4 '우리 아버지 에녹이여, 당신은 영원한 통치자이신 주님께 복을 받았사오니 이제 당신의 아들들과 모든 백성을 축복하사 우리가 오늘 당신의 얼굴 앞에서 영광을 받게 하소서.

5 당신이 세세토록 주님의 면전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이는 주님께서 땅의 모든 사람보다 당신을 택하시고, 그의 모든 창조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기록자로 지정하시고, 사람의 죄에서 구하는 자로 삼으시고, 당신 집안의 돕는 자로 세우셨음이라'

65 장

그의 아들들에 대한 에녹의 가르침에 대하여.

에녹이 모든 백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자녀들아 들으라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전에 주님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느니라.

2 충분한 시간이 있고 지나고 난 후에 사람을 자기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 속에 보는 눈과 듣는 귀와 반성하는 마음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음을 깨달아라.

3 주님께서 사람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그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시간을 나누시고 시간으로부터 햇수를 정하시고 햇수를 정한 다음에 월을 정하시고 월을 정한 다음에 날을 정하시고 날을 일곱으로 정하셨느니라.

4 또 그 안에서 그 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을 정확히 측량하여 사람으로 시간을 반영하고 년과 월과 시와 그들의 교대와 시작과 끝을 세게 하시고, 또 자신의 생애를 처음부터 죽음까지 세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나쁘고 좋은 자신의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도다. 주님 앞에 어떤

행위도 숨겨질 수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알고 그의 모든 계명을 범하지 아니하며 내 손으로 쓴 것을 대대로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5 주님께서 창조하심과 같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이 끝날 때에, 모든 사람이 큰 심판으로 나아가리니 그 때에는 모든 시간이 사라지고 해도 사라지고 달과 날과 시도 없으리라, 그들은 함께 붙어 수를 세지 아니 하리라.

6 한 영겁(무한한 시간)이 있으리니 주의 큰 심판을 피할 모든 의인이 의인에 대해서 큰 겁이 시작되리니 그들이 영생할 것이요, 그 때에 그들 중에는 어떤 수고나 질병이나 굴욕이나 근심이나 궁핍이나 폭력이나 밤이나 흑암이 없을 것이요, 오직 큰 빛이 있으리라.

7 또 그들에게 무너지지 아니할 큰 성벽과 밝고 썩지 아니할 낙원이 있으리라, 썩을 것이 다 지나가고 영생이 있을 것이니라.

66 장

에녹은 그의 아들들과 백성의 모든 장로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며, 오직 그를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의 형상께만 오직 경배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자녀들아,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같은 모든 불의로부터 너희 영혼을 지켜라.

2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서 행하며 그분 만을 섬기라.

3 참 하나님에게 절하고, 말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분의 형상에 절하고 모든 공의로운 예물을 주님의 얼굴 앞에 드려라. 주님은 불의한 것을 미워하시느니라.

4 주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나니 사람이 그 마음에 생각을 품을 때에 그가 지성을 조언하나니 모든 생각이 항상 주님 앞에 있느니라, 땅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위에 만물을 두신 이시니라.

5 하늘을 우러러보면 주님께서 거기 계시며; 네가 바다의 깊은 곳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하면 주님이 거기 계시니라.

6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사람이 만든 것에 절하지 말고 모든 피조물의 신을 떠나라, 이는 어떤 일도 주님의 얼굴 앞에 숨겨질 수 없기 때문이라.

7 내 자녀들아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정직과 분개와 슬픔과 믿음과 진실과 약속을 의지함과 병들음과 학대와 상처와 시험과 벌거벗음과 궁핍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행하라, 네가 이 악한 세대에서 나올 때까지라, 그러면 네가 영원한 시간의 상속자가 되리라.

8 큰 심판을 피할 의인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해보다 칠 배나 빛날 것임이요, 이 세상에서는 일곱번 째 부분이 모두, 빛과 어둠과 음식과 향락과 슬픔과 낙원과 고문과 불과 서리 및 기타 것들로부터 분리되느니라; 그가 모든 것을 기록했으니 당신이 읽고 이해할 수 있으리라'

67 장

주님께서 땅에 흑암을 내리시며 백성과 에녹을 덮으시니 그가 높이 들리우매 하늘에 빛이 다시 임하니라.

에녹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주님께서 흑암을 땅에 보내시매 흑암이 에녹과 함께 섰던 사람들을 덮었더니 그들이 에녹을 데리고 가장 높은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올라가니 그가 그를 영접하여 그의 앞에 두시니 어두움이 땅에서 떠나가고 빛이 다시 왔더라.

2 백성은 에녹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적힌 한 두루마리를 발견하였노라. 그리고 모두 자기 집으로 갔느니라.

68 장

에녹은 Tsivan 월 여섯째 날에 태어나 삼백육십오 세를 살았노라.

*Tsivan: 교회력 3 번째 달

2 Tsivan 월 첫 날에 하늘로 올려졌고 육십 일 동안 하늘에 머물렀더라.

3 그가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징조를 기록하고 삼백육십육 권의 책을 써서 그의 아들들에게 넘겨주고 삼십 일 동안 땅에 있더니 Tsivan 월 여섯째 날에 다시 하늘로 올려지니라. 그 날과 시간이 그가 태어난 때와 동일하니라.

4 이생의 모든 사람의 본성이 어두우므로 그의 잉태와 출생과 죽음도 어두우니라.

5 그가 잉태된 시간에 그가 태어났으며 그 때에 또한 돌아가셨도다.

6 므두셀라와 그의 형제, 에녹의 모든 아들이 급히 Achuzan 이라 하는 곳에 제단을 쌓았으니 거기서 에녹이 하늘로 들리워진 곳이라.

7 또 제사를 드릴 소를 취하여 모든 백성을 불러 주님의 면전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8 모든 백성과 백성의 장로들과 온 회중이 잔치에 와서 에녹의 아들들에게 예물을 가져왔더라.

9 그들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흘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에녹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 같은 표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노라,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세대에서 세대로 노인에서 청년으로 그것을 물려주었노라.

10 아멘.